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모두발언

[1. 인사말씀]

안녕하십니까,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손병두입니다.

그간 금융권은
민생금융안정패키지를 통해
실물경제에 대한 신속한 지원을 이끌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경제에 또 한번의 위기가
찾아오고 있습니다.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조치가 길어지면서
어렵게 마련한 경기반등의 흐름이
꺾이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강력한 방역조치가 단기적으로는
경제활동을 제약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방역에서의 성공이
경제를 회복시키는 가장 빠른 길입니다.

금융의 역할은
방역조치 강화로 인한 일시적인 어려움에
소상공인과 기업들의 버팀목이 되는 것입니다.

금융권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한 어려움을
모두가 함께 이겨낼 수 있도록
방역에 힘써 주시고,
금융지원도 적극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2-1. 금융권에 철저한 방역조치 당부]

앞으로의 일주일이 방역의 최대고비인 만큼
금융권에서는 여러가지 어려움이 있겠지만
방역의 성과가 나올 수 있도록
최대한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금융당국과의 상시보고체계를 구축하고,
사회적 거리두기 지침과 방역수칙을
철저하게 이행해 주시기 바랍니다.

집단감염이 발생할 수 있는
콜센터, 방문판매영업의 경우
방역지침에 따라 관리체계를 강화해주시기 바랍니다.

은행권에서는 오늘부터 이번주까지
방역조치 강화를 위하여
서울, 수도권 소재 은행에서
영업시간을 1시간 단축하였고

보험업계에서도 이번주까지
보험설계사의 대면영업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권고해 주셨다고 들었습니다.

* 충청북도의 경우 행정명령으로 금지

금융권에서는 강화된 방역조치 하에서도
금융서비스들이 원활하게 제공되고
고객들이 불편을 겪지 않도록
세심히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금융회사들은 경제적 피해회복을 지원하는
경제 치료기관으로

코로나19 확산에도
BCP*가동과 비대면 지원 시스템 등을 활용하여
본연의 기능을 지속해야 할 것입니다.

* Business Continuity Plan / 업무지속계획

특히 매매, 결제시스템 등 금융인프라는
상호 연계성이 높으므로,
시스템적 위기로 전이되지 않도록
각별한 관리가 필요합니다.

금융당국은 코로나19 대응관련
재택근무가 가능하도록 망분리 예외조치*를
허용한 바 있습니다.

* 비상시 금융회사 등의 일반 임직원도 망분리 예외로 원격접속을 통한 재택근무가
가능하다는 점을 안내·전파(비조치의견서 및 보도자료 배포, '20. 2월)

재택근무시 보안 유의사항을 숙지하고,
해킹·정보유출 등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금융보안에도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정부는 이번과 같은 비상상황, 근무환경 변화 등에
금융회사가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금융회사·전자금융업자, 금융인프라 기관 등의
디지털 금융보안 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보안규제 합리화 방안도
단계적으로 검토해 나가겠습니다.

[2-2 비상경제 대응방향]

그간 코로나19 영향과 수해 등으로
경제적 피해가 누적되어 있는 만큼
방역과 함께 경제에서도
비상한 대응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지난 주 정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대비하여
「중소기업, 소상공인 만기연장·이자상환 유예조치」 기한연장(8.26일),
「금융규제유연화방안」, 「공매도 제한」 6개월 추가연장(8.27일) 등을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금융권이 적극적인 실물경제 지원 역할을 지속하고
금융시장의 불안심리 확산을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정부에서는 연장조치들의 이행상황을 모니터링하고
장기적 시계 하에서 관리해 나가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조치로

취약계층, 소상공인, 중소기업들의 어려움이
가중될 가능성이 큰 상황입니다.

민생금융안정패키지 프로그램의 경우

소상공인 지원 프로그램 10조원

중소중견 기업 지원 프로그램 8조원 등

지원여력이 충분한 상황인 만큼

방역의 우려가 해소될 때까지

적기에 충분한 자금을 공급해 나가겠습니다.

코로나19 확산추이와

정책자금 소진속도 등을 감안하여

관계부처 협의를 통해 프로그램 보완도 검토하겠습니다.

또한, 시장안정화 프로그램의 경우

증안펀드, 채안펀드, 저신용회사채·CP 매입 프로그램 등

58조원의 지원여력이 비축되어 있으며,

기존 프로그램만으로 충당하기 곤란한

대규모 기간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40조원의 기간산업안정기금도

2차 방어선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향후 실물경제의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면서

비축된 지원여력을 활용하여

자금을 신속하고 충분하게 공급하겠습니다.

[2-3 미래 성장동력 확보]

코로나19 장기화에 대응하여 금융지원이 늘어날수록
기업과 가계가 미래에 상환해야할
부채도 증가하게 됩니다.

금융지원은 현재의 위기를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무제한적으로 이어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코로나19 이후
가계와 기업이 새로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미래를 위한 투자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판 뉴딜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로의 전환과
신산업 육성을 차질없이 이행하기 위한
청사진입니다.

한국판 뉴딜의 성공을 위한
금융권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3. 마무리 말씀]

코로나19 재확산이라는 위기를 맞아
방역과 경제라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소통과 협력이 중요합니다.

금융권에서는 내부로는
비상대응 부서와 금융지원 부서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외부로는 금융당국, 방역당국과의 보고,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철저한 방역과 적극적인 금융지원이라는
두가지 목표를 동시에 달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